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흔들림에 기대어 보았는가?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흔들리다'는 자동사로 '(사물이) 이리저리 잇달아 움직이다'의 우리말이다.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많은 '흔들림'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역설적으로 '흔들림'을 우리는 '힘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흔들림'이 '기대어 함께 걸어가야 할 친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흔들림'을 피하거나 정면 돌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다가오는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면 간단하게 모든 상황은 정리된다.

'흔들림'에 대한 작은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자 독자를 찾아온 귀한 책이 있다. 바로, 최재선 교수(한일장신대학교, 시인, 수필가)의 '흔들림에 기대어', 수필과 비평사, 2019다. 이 책에서 작가는 '흔들림'의 강도는 개인에 따라 부드러울 수도, 강펀치로 다가올 수도 있는 차별성에서 글쓰기의 출발점을 찾고 있다.

'……살다 보면 웃자란 욕심은 우리 삶을 무겁게 한다. 틈을 뚫고 나가라면 달빛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가벼워야 허공에 달처럼 피어날 수 있다.……'(최재선 수필집, '흔들림에 기대어', 수필과 비평사, 2019, 15쪽.)

삶의 궤적에서, '흔들림'의 시작은 바로 '욕심'이다.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다. 은근히 그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방법일 뿐이다. '욕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또, 어떤 방법을 통해 성취하는가에 문제가 있다. 버리기도 어려운 것이 '욕심'이다. 수많은 '욕심'의 틈을 뚫고 나가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가벼워야, 우리의 '욕심'도 완성될 것이다.

"……내 것에 관한 그리움이 궁하고 다른 사람 것을 무작정 부러워하면 삶이 얇아진다. 내 삶이 古典이 되지 못하고 苦戰이 된다.……"(최재선 위의 책, 15쪽.)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을 감추려는 것도 위선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렇다면, 내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이는 야속한 삶의 궤적이 없는 삶이 있을까? '……산책은 누군가와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려고 안달하거나 뒤처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최재선, 위의 책, 27쪽.) 않아도 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산책', 그중에서도 '마음의 산책'이 절실하다.

산책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있다. 걸어가든, 손을 잡고 가든, 뛰어가든, 그것은 산책하는 자의 선택이다. 저마다 타고난 성격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산책의 강도가 약하고 강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씻고 누웠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텃밭에 자리는 쪽 마늘이 혹한 틈에서도 기죽지 않고, 파릇파릇 통마늘 꿈을 꾸고 있다. 쪽 마늘 같은 하루의 생이 통마늘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스르르 눈을.……'(최재선, 위의 책, 36쪽.) 감았다.

일단 산책을 다녀오면 피곤이 밀려온다. 당연한 몸의 신호다. 피로에 지친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휴식이다. 적당한 휴식과 운동의 병행이 필요한 이유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피로를 텃밭에서 자리는 쪽마늘 틈에서 자라난 파릇파릇 통마늘을 꿈꾸는 우리가 아니었던가? 서로의 꿈을 갈구하면서 스르르 눈을 감는 마음의 평안히 바로 하루의 생을 마감하는 탄식이다.

'……나는 글쓰기 여행을 날마다 하면서 아픔을 덜어낸다. 내 안에 자라는 상처를 떠나보낸다. 일이 잘되어 가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려고 애쓰며 내 利己를 쓰다듬는다. 외로움에 친해지려고 외로움의 중심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는다. 아직 남은 생애를 완성하지 못한 문장처럼 여기고 계속 퇴고하려고 한다. 글쓰기는 치유를 넘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날 건져준 줄이다.……'(최재선 위의 책, 107쪽.)

작가는 탄식을 글쓰기로 덜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자라는 상처를 떠나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가능하면 일이 잘되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라도 더 배우고 활용하려 한다. 비록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 퇴고에 퇴고를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말이다.

이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를 건져준 줄이 바로 치유의 글쓰기다. 이런 글쓰기는 서로 지겨워할 겨를도 없이 스치듯 지나가 버린다. 봄날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와는 반대가 된다. 가을이 되면 서로에게 기울어 빠져든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꽃이 된다.

'……서로에게 물든 수업은 지겨워할 겨를 없이 스치듯 지나간다. 꽃은 봄날에만 피지 않는다. 서로에게 기울어 빠져들면 꽃이 된다.……'(최재선, 위의 책, 119쪽.)

서로에게 물든 수업, 그 수업은 어떤 형태이고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일까? 그런 수업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 수강 신청을 클릭할 것이다. 이상적인 수업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서로에게 기대어서 '흔들림'을 이겨내고 '봄날'에만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아찔하게 한 방에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고 그 한 방이 무서워 뒤처지거나 그 길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절망이 아니라면 한 번쯤 과감하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청년 정신이 필요한 시대다.

나이 50대, 60대도 청년인 시대다. 그들의 열정은 이미 20대, 30대를 아우르는 커다란 우주선이 되고 있다. 이런 삶을 유지하려면 게을러서는 곤란하다. 부지런한 자만이 글쓰기의 매력도 '흔들림'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랑은 아플지라도 해야 한다. 아찔하게 허방에 또 빠질지라도……"(최재선, 위의 책, 231쪽.)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서 타박타박 걸어가야 한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에 따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맞추어 움직이면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약한 영혼의 인간이기에 흔들림을 피할 수는 없다.

비가 내린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다. 마구잡이로 내리는 비에 바람이 가세한다. 쉽지 않은 빗길이다. 그 길을 가야만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이 있다.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진다.

길은 미래를 준비한다. 그 길에 조금의 망설임과 방해가 있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흔들림'을 피하지 말고 기대어 함께 걸어가는 '너와 나'를 이 책(최재선, '흔들림에 기대어', 수필과 비평사, 2019.)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 설

장마철 안전 대비와 발빠른 복구 준비를

호우를 동반하고 있는 늦장마에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폭우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가 있다.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과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장마 전선이 심상치 않다. 중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준 장마 전선이 북상해 한반도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송하진 도지사가 부안군과 고창군 등 재해 위험 지역을 방문해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다. 정비 계획을 묻는 등 수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풍수해 피해가 적다고 해서 전라북도를 '전라복도'라고 일컫는 말이 있었지만 마냥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 전북 지역에도 폭우와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풍수해 저감사업비 내용이 그것이다.전북도와 각 시군이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투입하는 돈이 적지 않은 것이다. 올해엔 아직 공표된 게 없어 잘은 모르겠으나 수년 전 보도에 따르면 연평균 6699억 원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전북의 한 해 예산이 8조 원을 한참 밑돌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만한 풍수해 저감 사업비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그 투입한 액수만큼 풍수해 저감 효과를 제대로 보았는 지 궁금하다. 풍수해 작업이라는 게 때로는 뒷북치기 같은 수습이 아니었느냐는 물음이다.

이제 그같은 땜질 식 처방으로 풍수해 피해가 막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

수해를 당할 때마다 복구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기에는 시원치 않은 복구가 더러 있었다. 그나마 복구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완벽했던 것도 아니다. 피해 복구는 온전히 마무리돼야 한다.

그 상식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이 있었기에 여기 특별히 당부하는 바이다. 전북도와 시군 단위의 지자체들은 안전 대비와 발빠른 복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궁금하다

군산형 일자리가 어찌 돼 가는지 궁금하다.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지도 오래되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밝은 소식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물어보나마나 군산시민들은 마음이 타들어버릴 대로 타버렸을 터이다. 그런데도 정부 쪽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그래 군산 시민들의 입장을 챙겨 전북도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줘야겠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에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군산형 일자리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두는 일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산의 경제 위기때문에 전북 경제가 함께 흔들린지 오래이니 말이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니와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겠다.

오래 전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산과 구미와 대구가 구체적인 계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때 본보는 전북도와 군산시에게 했던 말이 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말한 그 발언의 행간을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서 하는 말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구미나 대구 중 하나에게 밀리게 된다면 군산시민들은 실망이 무지 클 거라고. 그러므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제몫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 발언들이 민심 달래기용으로 그치고 만다면 곤란하다.

군산을 살려내겠다고 천명했으면 필히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매진해야만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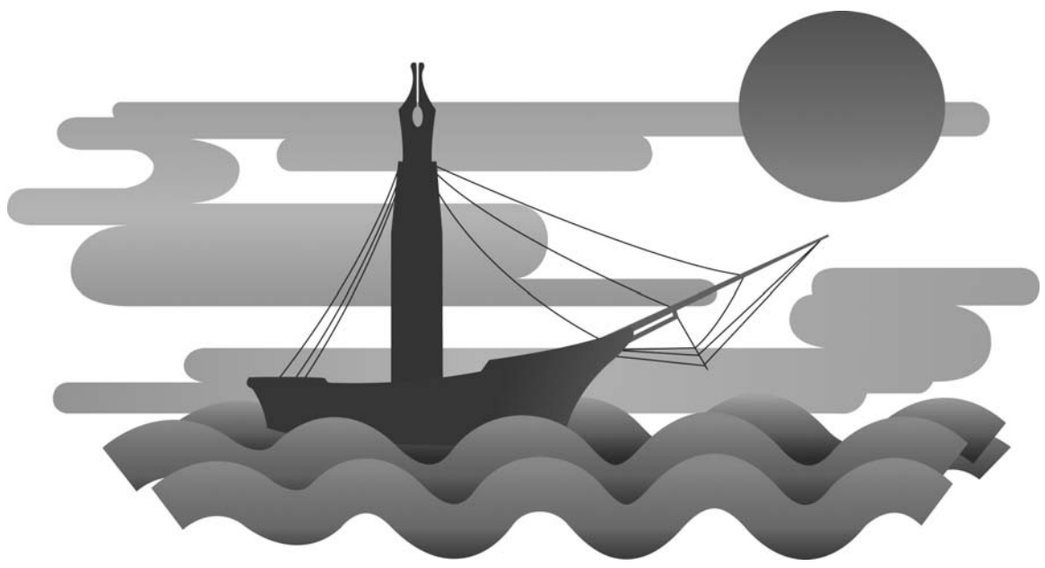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독자제언

비극의 악순환, 가정폭력의 대물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죽이는 패륜사건은 가족이 가족을 괴롭히고 죽음에 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사건 중 극단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 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패륜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이야기 이다.

평소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어 학대받은 아이들이 커서 패륜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정 내에서 어릴 때부터 사소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이를 진정 변화시키는 건 사랑의 매로 포장된 폭력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대화라는 사실을 알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1기동대 경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